



26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서 참석자들이 AI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체험해보고 있다.



/뉴시스

포스기·마이데이터·챗봇까지 일상에 스며든 미래 금융 한눈에

프로포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128곳 참여… 99개 부스 운영
글로벌 핀테크 기업 기술 각축전

AI 결합 핀테크 서비스 이목 집중
국내외 기업 부스마다 체험 ‘후끈’

26일 서울 양재 AT센터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참석하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국내 금융·IT 업계 관계자는 물론, 해외 투자자와 일반 관람객의 발길도 이어졌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사전등록 인원은 50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2배 규모다. 오는 28일까지 개최되는 올해 행사에는 128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99개 부스를 운영한다.

올해 행사는 ‘핀테크x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4대 금융(신한·KB국민·하나·우리)은 전통적 금융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공개했고, 토스·N Pay·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도 금융 앱을 일상생활까지 확장하는 다양한 신기능을 선보였다.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부상하는 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 등 해외 기업도 다수 참여했으며, 글로벌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업 오라클도 올해 처음으로 부스를 냈다.

본격적인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국내 금융지

주 회장들은 행사에 앞서 자사 부스를 방문해 신기술을 체험한 뒤 임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은 메인 스테이지에서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본 행사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날 이억원 위원장은 개막식 환영사에서 “앞으로는 AI 활용능력이 경쟁력의 절대적인 척도가 될 것이고, 정부도 ‘AI 3강 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라면서 “금융이 AI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초대형 투자를 추진하고, 금융 관련 AI 인프라를 정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몰린 부스는 카카오페이·Npay·토스 등 간편 결제사가 운영하는 부스였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와 결제 이력 등을 활용해 더 건강한 생활과 소비 패턴을 제시하는 ‘Pay I’를 선보였고, Npay는 이달 정식으로 출시한 오프라인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시연했다. 토스는 앱 사용자의 비식별 정보를 활용해 자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토스 애널리틱스’를 선공개했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 애널리틱스는 토스 앱 사용자의 동의하에 제공되는 비식별 정보를 활용해 자영업자의 영업 전략 설정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상권분석 시스템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면서 “시스템 구축 및 앱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뱅크는 자사 인터넷뱅킹 앱 내에 제공될 예정인 챗봇 기반 서비스 ‘AI 에이전트 뱅킹’을 선보였다. 사용자가 전송한 메시지를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안내받는 것은 물론,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금융자산 관리도 가능하게 했다.

i뱅크 관계자는 “디지털금융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은 아직 많지 않다”라면서 “대화만으로도 각종 금융 거래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금융취약계층도 각종 금융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DBMS 기업 오라클도 올해 처음으로 부스를 냈다. 국내 금융산업이 탈규제 움직임을 따라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광범위하게 구축한 글로벌 인프라와 업계 표준, AI 활용 능력 등을 앞세워 국내 판로를 확장하려는 목표다. 오라클은 이미 하나카드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공급 중이다.

올해 전시회는 금융업계와 IT업계가 상호 발전을 위해 교류하는 자리를 넘어, 일반 관람객들도 차세대 핀테크 기술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저축은행 금리 3%대 진입 예대율 부담에 수신 강화

정기예금 평균 2.72%로 올라
6개월·1년 모두 3%대 초과도

저축은행 업권의 예금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수신 경쟁에 소극적이었던 저축은행들이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년 만기 저축은행업권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저축은행업권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이달 초중순 2.69%에서 2.68%, 2.67%로 조금씩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다. 월말에 접어들면서 2.71%를 지나 2.72% 수준까지 다시 상승했다.

지난 20일을 기준 금리(단리 기준)가 3%를 넘어선 곳도 나오고 있다.

OK저축은행의 ‘e-안심애플러스 정기예금6’ 상품 금리는 2.90%에서 3.10%까지 올랐다. JT천애저축은행의 ‘비대면 회전식 정기예금’도 2.85%에서 3.05%로,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은 2.70%에서 3.05%로 확대됐다. HB저축은행 ‘e회전 정기예금’, ‘스마트 회전 정기예금’ 상품 모두 2.70%에서 3.05%로 상승했다.

6개월 만기 상품이 3%를 초과한 곳도 있다. OK저축은행의 ‘e-안심애플러스 정기예금6’은 3.10% HB저축은행의 ‘e-정기예금’, ‘스마트 정기예금’은 예금이 6개월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만기 상품과 비슷하게 모두 3%대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다시금 오르는 배경에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연말 예금 만기 시즌의 도래다. 연말에는 만기 도래 예·적금이 많아 자금이 대거 풀리는 만큼,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예금 금리를 조정해 고객 재유치 전략을 펼쳐왔다. 올해 역시 이런 연말 특성이 금리 인상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예대율 관리 움직임도 예금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예대율은 은행이 보유한 예금 대비 대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다.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려 자금을 확충하고, 모수를 늘리면서 예대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금리의 불확실한 환경이 저축은행업권 예금금리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 금리가 현재 동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또 오를지 모르는 시장 금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저축은행업권들이 미리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장 금리가 동결 혹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 하에 저축은행권들이 미리 금리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하나의 원인으로 예금 금리가 올랐다고 보다는 연말 시기, 예대율 관리 차원, 시장 금리 환경 변화 등의 변수가 골고루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고객 체감하는 데이터 혁신 만들자”

KB금융 데이터 혁신 세미나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비즈니스·문제 해결 측면 활용”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5년 하반기 그룹 데이터 혁신 세미나’에서 “비즈니스와 문제 해결 측면에서 데이터를 바라보고, 도전적인 자세로 고객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KB금융은 데이터와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 중심의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계열사간 데이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KB금융은 데이터를 실제 비즈니스 현장과 고객 서비스에 접목해 고객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상·하반기 그룹 데이터 혁신 세미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주와 계열사의 데이터·AI 분야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계열사 전 직원에게 동시 전달됐다. KB금융은 ▲고객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방안 ▲임·직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 ▲데이터 분석·사업 활용 방안 연구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각 계열사 실무 직원들은 ‘데이터 기반 고객 금융안전망 구축’, ‘소비패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에서 진행된 ‘25년 하반기 그룹 데이터 혁신 세미나’에서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사진)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카드 추천’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도출한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일선 현장의 성공적인 데이터 활용 경험을 그룹 차원으로 확산시키고자 데이터와 마케팅 영역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창출한 주요 성과·향후 계획과 함께 신규 도입한 AI 에이전트의 활용 사례·시점 등을 공유했다.

KB금융 관계자는 “데이터와 비즈니스의 언어를 동시에 이해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환경을 갖춰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고의 회계부정 1년 초과시 과징금 매년 30%씩 가중”

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위반 기간 비례해 패널티 부과

앞으로 기업은 회계부정 기간만큼 가중처벌을 받는다.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1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위반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위반기간에 비례해 페

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고의적인 회계처리 기준 위반행위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시킨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 3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분식 회계 수준으로 처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 회계 조치시 조치 가중사유”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규정상 허용된 최고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일부기업에서 이뤄지던 대주주

나 미등기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 이익을 얻는 행위도 막는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유도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이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감면한다.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